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6호 【루계 제26160호】 주체107(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원 수 각 하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을 경축하는 기회에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친선적인 조선인민과 투쟁하는 귀 당지도부, 당원들에게 나자신과 팔레스티나국가와 인민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계기에 즈음하여 각하께서와 그리고 귀국과 귀국인민이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력사적인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당신들이 강점을 끝장내고 화해와 공존, 정화의 도시인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하여 공정한 평화를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과 지지를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합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팔 레 스 티 나 국 가 대 통 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 흐 무 드 아 빠 스

2018년 10월 10일 라말라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접견하신 소식을 중국의 신화통신,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테르팍스통신,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 즈베즈다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뜨 모스크바》,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이란의 이르나통신, 파르스통신, 프레스TV방송, 인디아의 신문들인 《인디안 엑스프레스》, 《오우션 뉴스 포인트》, 인디아—아시아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꾜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 에질트신문들인 《알 아흐람》, 《알 야움 알 싸비아》, 《알 미쓰리 알 야움》, 키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미국의 AP통신, 브라질신문 《오라 도 뽀보》,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베네수엘라의 신문 《엘 우니베르쌀》, 텔레쑤르TV방송, VTV방송,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헌지지도소식들》과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제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이 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한》,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하시어 교원, 연구사들을 축하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도이췰란드단체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도이췰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가 3일과 8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단천전역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에서 수천m의 기본물길굴도갱 관통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단천발전소건설장적으로 제일 방대한 구간의 기본물길굴굴진과제를 맡은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맡은 수천m 기본물길굴의 도갱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혁혁한 전과를 올린것이다.

지난 4월 9개의 작업갱공사를 전부 끝내고 갱들사이의 관통을 위한 좌우굴진, 맞굴진전투를 전격적으로 벌려온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38-2갱과 39-1갱사이의 마지막관통전을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결속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방대한 기본물길굴도갱완성의 순간을 맞이한 부대의 막장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이곳 지휘관, 군인건설자들의 기쁨과 환희로 세찬 소용돌이속에 잠기고 건설장주변의 곳곳에서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은 아아한 산발마다에 격정의 메아리를 일으키며 오래도록 울려퍼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 받들어 건설장으로 달려온 첫날부터 1년 남짓한 기간 심산계곡을 타고앉아 3500여m의 작업갱굴진을 해제낀데 이어 련속공격전으로 수천m의 도갱굴진에서 통장훈을 부른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이 번개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이곳 군인건설자들의 충정의 마음과 애국적헌신성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우리 혁명의 제일선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단숨에의 투쟁기풍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꽃피울 일념안고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지난 4월 9개의 작업갱공사를 결속한데 이어 련속적인 좌우굴진방식으로 수천m 기본물길굴의 도갱굴진을 위한 총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부대지휘부에서는 막장이 깊어지고 공사정황이 번화되는데 맞게 압축기, 권양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교차점들에 광차돌이장, 비력하차장 등을 시급히 형성하는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시일안에 갱들마다에서 기본물길굴도갱굴진준비가 완료되고 갱들사이의 관통을 위한 좌우굴진투가 본때있게 벌어졌다.

백일남, 김영술동무를 비롯한 부대지휘관들은 작업갱공사완성으로 앙양된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 한편 기본물길굴도갱관통의 전망이 확고한 단위들에 압축기전동기 등 예비설비, 부속품들과 화공품의 보장조건을 앞세우면서 구분대별고속도굴진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꽃피울 일념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 구분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립체적인 도갱굴진전투를 완강하게 전개해나갔다.

36갱을 맡은 지상일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작업갱공사때의 그 투지로 방향성발파에 의한 버력처리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련속천공, 련속발파전을 들이대여 한개 단면에서 6m이상의 굴진실적을 올리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또한 립체갱파의 관통을 편차없이 보장하기 위한 좌우측방향에로의 전진을 힘차게 다그치였다.

하여 지난 7월 전승절을 맞으며 35-2갱을 맡은 광촌길소속구분대가 부대적인 첫 관통을 보장하였으며 8월에는 37갱을 맡은 우남식소속구분대쪽으로 정해진 지점보다 수십m나 더 진격하면서 또다시 수백m 도갱구간을 통쾌하게 관통하는 자랑을 떨쳐냈다.

부대군인건설자들은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37갱과 38-1갱, 39-1갱과 39-2갱을 비롯한 여러갱들사이의 도갱굴진을 련이어 마무리하는 자랑찬 성과들을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룩하였다.

38-2갱과 39-1갱사이의 마지막구간관통전은 부대군인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불굴의 투쟁기풍으로 하여 결사전을 방불케 하며 맹렬하게 전개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신념의 맹세안고 방대한 작업갱공사를 끝낸데 이어 도갱굴진을 위한 총돌격전에 나선 리은철, 최명훈소속구분대원들의 혁명적열의에 떠받들려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마지막구간이 성과적으로 관통되는 현실이 펼쳐졌다.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에서 방대한 구간의 기본물길굴도갱공사를 기일을 훨씬 앞당겨 전부 끝낸 자랑찬 성과는 단천전역의 전체 발전소건설자들을 당의 령도따라 증산돌격운동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있다.

현지보도반

언제건설을 위한 가물막이전투 결속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장에서

청천강전역에 결사관철의 기상이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해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언제건설을 위한 가물막이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더욱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감으로써 오늘의 승리가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청천강에 근 200m의 가물막이뚝을 형성하여 강복판에 여러개의 언제기둥을 일떠세우기 위해 하는 공사였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지난 시기 청천강에 수십개의 언제기둥들을 일떠세운 조건에서 나머지 기둥공사를 련이어 다그치기 위해 가물막이공사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힘있게 내밀었다. 이들은 들끓는 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자재보장을 선행시키였다. 그리고 시공지도를 제때에 따라세우는것과 함께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드세게 벌리였다.

언제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마다에 만장약하고 폭풍쳐 내달리였다.

물과의 전투를 벌리면서 9천여㎥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가물막이공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지만 려단일군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신념을 안고 아진형의 지휘관이 되여 공사를 제기있게 밀고나갔다.

려단에서는 로력과 설비, 자재를 집중하여 아름찬 공사를 빨리 해제낀 목표밑에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부속품들을 확보하고 연유보장대책을 앞질러 세우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그리하여 굴착기와 삽차 그리고 자동차들이 낮에 밤을 이어 힘찬 동음을 울릴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대대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위훈을 창조하였다.

성천군, 회창군대대를 비롯한 여러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가물막이뚝형성을 위한 돌운반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맞돌이와 질통으로 큰돌들을 운반하여 물속에 넣은 다음 일정한 높이로 쌓아 성토를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개천시와 순천시대대 그리고 성천광산대대를 비롯한 다른 대대의 돌격대원들도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완강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그들은 신돌때를 든든히 조이고 떨쳐나 가물막이뚝의 중심강토를 하는데 필요한 1500여㎥의 진흙을 운반하여 다지기 위한 쌀아전투를 벌려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언제건설에서 청천강용사들의 본때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할 기세드높이 줄기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가물막이공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드높은 애국열의

경공업부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수십만개의 학생가방 생산공급

각 도에 새로 꾸려진 가방생산기지들에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혁신적인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평양가방공장을 비롯한 여러 가방공장들이 년간 학생가방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다른 공장들에서도 생산활성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속에 전국적으로 수십만개의 학생가방을 생산공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각지 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가방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특히 평양가방공장의 학생가방을 따라앞서기 위한 질경쟁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평양가방공장에서 생산한 학생가방은 형태가 다양하면서도 질이 높아 우리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해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현지지도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들은 1년도 안되는 기간에 공장적인 기능급수를 두등급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가방생산은 지난 4월까지, 남녀대학생가방생산은 지난 8월까지 전부 끝내고 올해 학생가방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평양가방공장의 뒤를 따라 성천강가방공장과 사리원가방공장에서도 년간 학생가방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평양가방공장의 종업원들처럼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실수률을 98%이상 보장하면서 제단속도를 종전보다 훨씬 높여 매일 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가방생산에서도 전국의 앞장에 설 자신만만한 야심을 안고 질좋은 학생가방생산에 떨쳐나섰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평양가방공장과 련관단위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장적인 기술기능수준을 부쩍 끌어올리는 한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 도 가방공장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정군기능급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개인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생산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가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각 도에 꾸려진 가방공장들뿐만아니라 자재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값비싼 수입자재대신 우리의 자재로 가방천을 도포할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꾸려놓았다. 하여 종전보다 생산원가를 훨씬 낮추면서도 색갈이 다양한 질좋은 가방천을 생산보장하고있다.

가방자크와 가방천원료, 가방테프, 금구류생산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학생가방생산에 적극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안고 자재생산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전국각지 학생가방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질좋고 다종다양한 가방을 하루빨리 안겨주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생산돌격전을 벌리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윤금찬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비단실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소비품생산에서 련일 혁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식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비상한 창조적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계속 혁신하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이들은 9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10월에 들어와서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키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평도업적단위들이 증산돌격운동의 기관차, 전인기가 될데 대한 당의 뜻을 새겨안고 줄기찬 생산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육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련속공정들사이 련계를 강화하고 그 과학화수준을 높여 갖가지 식료품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토대를 꾸리고 새 제품들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온을 내도록 하기 위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맛좋고 영양가높은 어린이식료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료, 자재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간장, 된장과 같은 여러가지 기초식품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대동강식료공장, 정현애국사이다공장, 평양맥주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원료원천을 더 많이 확보하고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락랑영예군인수지입용품공장, 평양식료품포장재공장에서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수요가 높은 다양한 수지일용제품과 식료품포장재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전혜영

유색금속광물생산에 박차를

후창광산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긍지를 안고 후창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광산에서는 9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계속 혁신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광산이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일군들은 광부들속에 들어가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직관선전물들을 기동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혁신의 새 소식들을 제때에 알려주어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광산일군들은 광물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속에 들어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하였다. 일군들은 단계별로 기술혁신전투목표수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기술자, 기능공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광산에서는 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은데 이어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일별, 주별, 월별계획을 모든 갱들에서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났다.

항목갱에서는 경사권양기운영을 정상화할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굴진성과를 확대할수 있는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청년갱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청년갱의 광부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종전보다 능력이 큰 광차를 제작리용하여 광물생산을 늘이였다.

선광직장에서는 선광장을 1.5배로 확장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쳤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선광능력을 높이였다.

은수중대와 로천중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광물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이밖에 여러 단위들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의 년말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것은 조선혁명의

우리 당은 일찌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주체이고 자주이고 자력갱생이며 여기에 우리의 존엄이 있고 긍지와 영예가 있습니다. 김 정 일

승리의 한길로 신심드높이 가고가리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대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보면 볼수록 황홀하다.

백두산의 억세 기상을 안고 력사의 폭풍우를 과감히 뚫고헤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를 향해 질풍쳐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상이 그대로 안겨온다.

우리 공화국의 건국과 수호, 창조와 번영의 전로정에 빛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원불멸할 혁명업적과 당의 령도따라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며 백승의 한길로 승승장구해온 주체조선의 영광찬란한 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우리 인민들에게 주는 여운은 참으로 크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력사인가.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빛나는 승리들이 남의 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식으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이룩한것이기에 인민의 격정이 그리도 뜨거운것이 아니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중시하며 우리 식을 주장합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전략적로선이며 주체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세기면 세길수록 커다란 감회가 우리의 가슴을 적셔준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은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고 번영의 활로를 열었으며 력사의 그 길에서 미증유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를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시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정권건설경험에 토대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밝히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군중을 묶어세워 새 조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토지개혁에 이어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로동법령 등을 발포하시고 력사적인 민주개혁이 전향없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나날 《통합경제》를 강요하는자들의 압력과 전횡에 단호히 맞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고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같은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담대한 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막강한 국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하는 흥분으로 가슴은 세차게 높뛴다.

우리에게 예속과 굴종을 강요하며 적들이 포위환을 좁혀들 때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내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그이의 위대성에서도 수령이 지닌 자주적대는 곧 나라의 존엄이고 참다운 번영이라는것을 깊이 절감하게 된다.

우리 식대로,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주체의 신념이고 견결한 의지였다.

어느해 여름이였다.

한 항일혁명투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한폭의 풍경화가 벽에 걸려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눈여겨 살펴보니 분명 요영구였다. 투사는 수십년만에 고향산천을 찾은듯 기쁨에 넘쳐 요영구가 아닌 너까라고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올리였다.

그림에 심취되여있는 그를 미소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중엽 조성된 혁명정세에 대처하여 더욱 광활한 지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을 벌림으로써 조선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불러오시기 위하여 고정된 유격구들을 해산하고 이 요영구에서 북만원정의 길을 떠났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복잡다단하였던 그 시기 요영구를 떠나실 때 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그 높은 뜻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1970년대 후반기 국제정세는 복잡하였으며 그 어파는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에도 커다란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을 총화하시면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조선혁명을 더욱 앙양시키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 중대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주체67(1978)년 12월 25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구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우리 혁명을 주체의 궤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한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투쟁의 기치, 만능의 보검이였다.

이 혁명적구호가 제시됨으로써 조선혁명의 전두에는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가 더욱 세차게 나붓기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이 신념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게 되였다.

1970년대만이 아니다.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경제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수놓은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제단으로 안아왔다.

경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고귀한 재부로 물려주신 우리의 혁명방식, 창조방식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체 인민이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보검이다.

지금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지난 5월 완공된 고암-탑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남바다 한가운데 아득히 뻗어나간 철길궤도를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식으로 조국땅우에 비약의 폭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아래 이 땅에는 그 얼마나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기치높이 우리 식으로 살며 투쟁할 때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정치도 우리 식으로 하고 경제와 문화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국방력도 우리 식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우리 혁명의 생명이다.

모두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신념의 글발을 심장마다에 더 깊이 새겨안자.

전체 인민이여,

누구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려는 신념,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라는 자각을 안고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자.

글 본사기자 김철혁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변함없는 우리의 혁명방식

혁명과 건설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그 전도를 좌우하는 판건적문제의 하나이다.

하다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 우리 인민이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방식, 투쟁방식, 창조방식은 과연 어떤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입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주체68(1979)년 12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가지 난관에 부닥칠수록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철저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여기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새겨안을수록 일군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백승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행로가 돌이켜졌다.

격정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고, 그 누가 강요한다고 하여 우리가 우월한 자기 식을 버리고 남의 식으로 살아갈수는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것이 제일이라는데 대하여 이렇게 통속적이면서도 명확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람이 옷을 입어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활동하기도 편리하고 남이 보기에도 좋지 자기 옷을 버리고 남의 옷을 빌려입으면 불편하고 어색하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 정치도 우리 식으로 하고 경제와 문화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국방력도 우리 식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

그렇다. 우리 식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혁명방식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입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비극적사태를 두고 사회주의의 《종말》을 요란스럽게 떠들 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여 주체의 붉은기가 더 높이 휘날리게 되였던가.

그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과 세계정치정세에 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90년대의 진군길에는 고난과 시련이 많이 가로놓여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90년대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갈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1990년대의 력사의 억풍을 맞받아나가는데서 우리 식, 주체식은 우리 당의 손에 쥐여진 서슬푸른 장검이라고 힘있게 언명하시였다.

진정 우리 인민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필승의 보검인 우리 식, 주체식이 있었기때문이다.

력사의 억풍을 짓무시고 이 땅우에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준 우리 식!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더욱 빛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오직 주체의 한길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우리 혁명을 백승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민족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심장에 새겨안는다.

우리 식, 주체식대로 살아나가는 여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강원남

김 영 남 동 지 가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의 주요성원들을 만났다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의 주요성원들을 만났다.

김영남동지는 의례방문하여온 구중문 국가체육총국 국장, 왕아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리영신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요명 중국통구협회 주석과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중국체육대표단의 방문은 체육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중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구중문국장은 김정은위원장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며 체육사업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것이라고 하면서 중조 두 나라사이의 체육교류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체육상 김일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표단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번영의 자랑찬 행로를 더듬어

력사적인 4월테제

정전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회담하시면서 자신께서 준비하신 테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신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이 내놓은 의견이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아직 사회주의협동화를 실시하지 못하고있는데 조선에서 사회주의협동화를 실시하는것을 반대한다는것이였다.

그들은 중소상공업의 협동화도 시비하였으며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일목료연한 해설도 쉽게 납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혁명도 하고 사회주의건설도 할것을 더욱 굳게 결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체44(1955)년 4월 력사적인 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발표하시였다.

그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키싱저이나 남의 경험에 구애되지 않고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가 갈길은 우리가 정한다는 주체조선의 견결한 자주신념의 분출이였다.

우리 식 CNC화에 대한 추억

주체99(2010)년 양력설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벤이 난 지난해의 수많은 력사적사변들가운데서도 자신께서 제일 긍지높이 생각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CNC기술이 세계적수준을 돌파한것이라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인가 CNC는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의 심장과 련결되여있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되새겨졌다.

우리 식 CNC화를 나라의 정책으로 제기하고 실현해오던 나날에 겪으신 남모르는 고충에 대하여 희열과 격정속에 이야기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금을 적시시였다.

우리 식 CNC기술을 개척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첨단수준을 돌파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백두청춘들의 정신과 문화

주체104(2015)년 10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였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인 여기 대자연개조전투장에서 창조된 청년돌격정신을 곧바로의 정신, 드세찬 공격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청년문화를 번지르르한 남의것이 아니라 고상한 우리의것을 꽃피우는 건전한 문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활기에 넘쳐 전진해나가는 전투적인 문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생활을 알뜰하고 깐지게, 문명하게 해나가는 사회주의생활문화의 전형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우리 당은 여기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기념비와 위훈전시관을 세워 그 공적을 길이 전하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지에서 백두청춘들의 정신과 문화를 따라배우도록 하게 하려고 합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백두청춘들의 정신과 생활문화를 모두가 따라배워 우리 식 생활양식과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한영민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들고나가야 할 전략적구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가 제시된 때로부터 40년이 되지만 그 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부각되고있다. 이 구호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전략적구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기성리론과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도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뚫고나가시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강위력한 일심단결과 자위적국방력도,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식으로 마련하신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변하여도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이 구호는 지금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뼈에 새아박은 신념의 구호,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행동의 구호로 되고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신념을 백배해주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혁명은 곧 자주이고 주체이다. 제정신이 없이 남의 식을 따르게 되면 혁명이 진통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좌절을 면할수 없다. 자기 식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데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있고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도 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기치밑에 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오는 행로에서 우리 식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얼마나 간고한가를 체험하였고 또 그 길만이 살길이라는것도 뼈에 사무치게 새기였다. 우리 인민이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식대로 투쟁하여왔기때문이다. 자기 식대로 살면 강자가 되고 남의 식을 따르면 약자로, 노예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이 조선혁명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우리 식은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혁명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사회주의건설을 오직 우리 식대로, 주체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는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근본원천이다.

민족리기주의, 지배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력갱생정신이 없으면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누구도 남이 잘되고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도와줄수도 없다. 자기 운명은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의 구호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견결한 투쟁정신이 맥박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 구호밑에 민족자존의 정신력,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자체의 힘으로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도 펼치고 고난의 행군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켰으며 민족사적대사변들도 다발적으로 이룩하였다. 만일 우리 인민에게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었더라면 아침과 저녁, 분과 초가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위대한 만리마시대, 세계정치의 중심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승리에 자만할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공격정신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 인민은 70일전투,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데 이어 련속공격전을 벌려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도 큰걸음을 내짚었다.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이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다 우리 인민이 고귀한 애국의 피와 땀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마련한것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조국번영의 대로를 활짝 열어나갈것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는 우리 인민이 휘황찬란한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나아가게 하는 투쟁의 기치이다.

우리 식에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숭고한 인생관이 체현되여있다. 자기는 비록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가진 사람들만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 식의 래일을 설계하게 된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들은 오늘의 조국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력자강의 토대를 억세게 쌓았고 이르는 곳마다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웠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을 본받아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더 좋은 래일을 마련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나라의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을 위해 과학교육사업에 힘을 넣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있다.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 이것이 훌륭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 창조본때이다. 조국의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후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투쟁해나가는 이런 인민이 있기에 주체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우리 인민은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김병진

만년대계의 전략이며 백승의 기치이다

주체화의 령마루에로 비약하는 금속공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맏아들인 금속공업부문이 주체화의 령마루에로 용을 쓰며 비약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산소열법용광로와 류동층가스발생로, 산소전로와 산소분리기를 비롯한 주체화대상들에 대한 준공식 진행!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고온공기연소식회전가열로와 소관카열로를 일떠세워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으로 인발강관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 마련!

금지의 철생산기지들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솟려퍼진 주체화의 우렁찬 포성은 우리의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드린 승리의 보고이며 강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갈 억척불변의 맹세이다.

금속공업의 주체화, 불러볼수록 가슴뜨거워진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생념원이였던 우리 식 철강재생산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얼마나 하많은 사연이 이 말속에 비껴있던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자원에 의한 철생산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

주체철생산체계확립을 위해 연구집단도 무어주시고 온 나라의 철생산기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연구종자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은 진정 자립적금속공업발전의 초행길을 앞장에서 헤쳐오신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주체의 붉은 쇠물은 오늘도 뜨겁게 전하고있다. 우리는 주체철생산에서 파스와 리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파스가 죽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비록 스제철법에 의한 철생산, 주체철생산이 우리 나라에서 철생산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밖에 없는 출로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 나라의 철생산기지들마다에 아로새기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하루빨리 이 땅에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철생산체계완성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할 신념과 의지를 만장약하고 금속공업부문과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과학자, 기술자들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났다.

우리 대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관철되지 못하는것을 보고서도 속수무책으로 앉아몽개는 무력한자들, 난관앞에 주저앉아 우는소리만 하는 패배주의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 강철로 당중앙을 옹위하자!

그들은 이런 신념과 의지를 안고 우리 식의 철강재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황철을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체철생산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렸다. 이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를 일떠세우고 첫 쇠물을 뽑아냄으로써 자력갱생에 기적창조의 열쇠가 있다는 진리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주체104(2015)년 12월 당 제7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호소문을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보낸 황철의 로동계급은 주체화실현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뜻깊은 올해에도 실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산소전로와 산소분리기를 비롯한 주체화대상공사를 완공하여 100% 우리의 기술과 연료, 원료에 의거하여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 식, 이 세 글자에 목숨보다 귀중한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련관단위의 일군들, 로동계급,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태원들도 무섭게 용을 쓰며 일어섰다. 이들은 500여일간의 치렬한 격전을 벌려 산소열법용광로와 류동층가스발생로를 일떠세움으로써 파스에 의한 철생산방법에 종지부를 찍고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도 확립하였다.

100% 우리의 기술과 연료, 원료에 의한 철강재생산공정이 갖추어진 긍지높은 현실속에는 주체철생산의 심장부인 대형산소분리기설치공사를 기한전에 끝내고 주체화대상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맡아해제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와 설비조립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련관부문 로동계급과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도 깃들어있다.

김철과 황철만이 아니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도 우리의 연료로 인발강관을 생산할수 있는 주체화대상공사가 결속되어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우리 식의 철강재생산체계가 더 큰 온을 내게 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이것은 금속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불같은 맹세이고 실천이다.

혁명발전의 년대기마다 높은 생산성과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지금 이들은 부강조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답게 나라의 금속공업을 주체화의 령마루에 우뚝 올려세우기 위해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충 성

자력갱생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각지 당조직들에서

자력갱생은 우리 식의 혁명방식, 창조방식이다.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식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혁명의 승리적전진이 있고 참다운 번영이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심화되고있는 지금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근로단체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 대중을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키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잘 짜고들고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금성트락또르공장, 대안친선유리공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나가도록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나간 시당책임일군은 현장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오늘의 투쟁은 우리의 전진을 탈가와하지 않는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라는것, 적들의 도전이 악랄해질수록 우리 식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순간의 주저와 답보도 없이 공격 또 공격해나가야 한다고 힘있게 호소하였다.

강서구역당위원회, 항구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지만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많이 찾아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강원도당위원회와 함경남도당위원회, 평안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도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연길룡탄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초소와 일터마다에 약동하는 혁명적기상과 투쟁기풍이 꽉 차넘치도록 하고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당조직들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수풍발전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전진시키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주면서 생산자대중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신념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백배해주는 각지 당조직들의 이런 조직정치사업들은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전진하는 조국의 축도—건설의 대번영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번모되는 우리 조국땅에 새라새로운 건설기적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있다.

전진하는 조국의 강용한 기상이 비낀 우리 식의 창조물들은 어떻게 솟구치고있으며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어떤 귀중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는가.

세월을 주름잡는 비상한 건설속도

이 땅우에 펼쳐지고있는 건설의 대번영기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 누구나 제일먼저 화제에 올리는것은 건설속도이다.

마식령스키장, 은하과학자거리,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과학기술전당…

일일이 손에 잡기 아름찬 그 건축물 하나하나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비상한 건설속도가 비껴있다. 결코 로력과 자재가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다. 허리띠를 조이며 일떠세운 귀중한 창조물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어떤것이며 우리 힘, 우리 식으로 앞당겨가는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이 어떤것인가를 말없이 가르쳐주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 식의 현대적인 건축물들은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솟구쳐올랐다.

불과 한해동안에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 조국력사에 길씨기 없었던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까지 치르며 270여일동안에 일떠세운 려명거리가 그러하다.

천리마시대에 이어 만리마시대에 펼쳐지고있는 주체건축의 발전면모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비상한 공격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조선의 힘찬 발걸음이며 더욱 눈부신 주체건축의 래일을 환히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삼지연군무리기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과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순천린비료공장건설…

날로 웅대해지고있는 우리 당의 건설구상은 계속 눈부신 현실로 이어지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에서 우리는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강용한 기상을 본다.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관

인류발생의 려명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건설활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로 장구한 기간을 거쳐왔고 이름있는 건축유산들도 적지 않게 남겨놓았다. 하지만 어느 시기, 어느 건축을 막론하고 우리의 주체건축처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한 건축은 없었다.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관!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하여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의 견의부터 먼저 생각하고 문화정서적인 환경과 조건,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며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 비끼도록 하는것이 바로 주체건축의 중요한 원칙이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렇다. 새 거리에 꾸려진 식당의 의자 하나에도 인민들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당의 뜨거운 손길이 어려있고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의 계단 하나, 새 살림집의 문손잡이 하나에도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응축되여있다.

교육자살림집, 로동자합숙, 현대적인 일터들과 인민의 웃음소리 높은 유원지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한것이고 후대들을 위한것이다. 병원이라기보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옥류아동병원이며 아이들의 놀이터까지 갖추어진 평양아동백화점, 어린이수조가 꾸려져있는 문수물놀이장, 걸음마를 떼는 아기들을 위한 그네까지 설치된 공원들…

진정 우리 당이 펼쳐가는 건설의 대번영기는 인민들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 우리 조국의 축도, 나날이 앞당겨지는 광휘로운 래일이다.

본사기자

우리의 두뇌와 기술로 지식경제건설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과학교육부문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근년간 새로 일떠서거나 훌륭히 개건된 창조물들마다에는 불타는 애국충정과 건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떨쳐일어난 과학자, 기술자들의 우리 식 창조기풍, 우리 식 창조본때가 깃들어있다.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어려 메기공장들과 우리 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평양자라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집단적혁신운동으로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대규모의 양묘장들에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양묘장통합조종체계를 연구도입하고 종자선별로부터 파종, 나무모보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우리의 두뇌와 기술로 자동화, 흐름선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적인 지식인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은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헌신의 열정이 슬매여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

각지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불타는 애국심을 발휘하여 불붙뛰는 탐구전, 창조전을 벌려왔다. 이 과정에 식료공업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조차 엄두를 못내는 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한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고온고압로라염색기, 평양양말공장의 자동양말꽂는기계 그리고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이 꽉 들어찬 평양곡산공장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며 조국의 동해기슭에 일떠선 우리 식의 서전만해상철길다리…

이 나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 식이란 결코 요란한 문구나 언사, 책상우의 도면이나 교과서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정책에 담는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있으며 인민의 절절한 부탁과 기대에 충실하는 여기에 우리 식 창조의 길이 있다는 진리도 굳게 새겨안았다.

그렇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오늘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창조투쟁으로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려 명 희

천만심장 하나의 의지로 불탄다

가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를 들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대로만 살아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노래들가운데는 주체68(1979)년에 태여난 노래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도 있다.

《이 땅에 찬란한 주체의 빛발 안고 하나의 신념으로 우리 심장 불탄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우리 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웠을뿐아니라 우리 식의 전법으로 싸워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전후에도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혁명도 완수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도 실현하였다.

우리 식으로 개척해온 승리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실 철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발치는 이 땅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신념의 구호가 높이 울리도록 하여주시였다.

이 노래를 들노라니 대동강기슭에 주체사상탑을 일떠세울 때의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처음에 창작가들은 주체사상탑앞에 철쇄를 끊어버리는 로동자를 형상한 조각을 세우려고 하였다. 이러한 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철쇄를 끊어버리는 로동자의 형상은 우리 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주체사상탑앞에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가 마치와 낫, 붓으로 된 우리 당마크를 높이 추켜든 군상을 세워야 탑의 성격에 맞는다고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주체사상탑을 일떠세우면서 그 기념비앞에 우리 식의 군상을 세우도록 하여주신 그 불멸의 령도업적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이 노래의 생명력은 우리 혁명이 류례없는 억경에 처하였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력사의 온갖 광풍을 맞받아나가며 우리 인민은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식, 주체식이란 다름아닌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당과 국가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준엄한 날에도 인민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글소리 높이 울리게 하여주려고 우리 당이 베푼 온정어린 조치에 대하여 눈물없이 돌이켜볼수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하나를 생각해도 우리의 혁명위해 천만가지 일을 해도 우리의 인민위해》라는 노래구절은 짧아도 거기에 담겨진 깊은 뜻을 뼈속깊이에 새겨안게 되는것이다.

노래는 이처럼 우리 혁명의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한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를 영원한 신념의 표대로 내세우고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가고갈 의지를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심어주고있다.

주체의 기치높이 력사의 폭풍우를 과감히 뚫고온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불변이다. 펼쳐온 승리가 귀중할수록 언제나 한마음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인민의 신심과 용기는 백배해지고있다.

노래가 태여난 때로부터 수십년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부름받들고 언제나 한마음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노래구절을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이 땅우에 기어이 인민의 리상이 꽃펴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차 수

당의 령도밑에 창조와 혁신의 길로 줄달음쳐온 자립적인 대화학공업기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걸어온 50년의 자랑찬 로정을 더듬어보며

나라의 손꼽히는 주체적인 대화학공업기지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창립된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50년간 련합기업소가 걸어온 자랑찬 발전로정은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며 끊임없는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창조와 전변의 력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대화학공업기지입니다.》

련합기업소가 걸어온 50년 력사의 갈피를 더듬어볼 때면 주체57(1968)년 10월의 남흥벌이 제일먼저 떠오른다.

무성한 갈대숲을 헤치시며 모래바람이 불어치는 남흥벌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설과 생산활동에 유리한 명당자리에 대화학기지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몸소 건설의 사령관이 되시여 방대한 공사를 단 몇해안에 끝낼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힘있는 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온 건설장이 밤을 모르는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2개월이 걸려야 한다던 대형합성탑조립을 단 2주일동안에 해제낀 건설자들은 하루공사과제를 300% 이상 해제끼며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싸우는 고지에 직사포를 끌어올려 원쑤의 머리우에 섬멸의 불소나기를 들씌우던 전화의 나날처럼 지하 6m깊이에 굴착기를 들여놓고 작업을 중단없이 벌려 공사기일을 4개월이나 앞당기였다. 수십만m의 배관공사에서 종전의 9배나 되는 조립속도가 창조된 놀라운 성과도 바로 이때 이룩된 기적중의 하나이다.

이렇듯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무에서도 유를 낳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단 몇해동안에 뇨소비료생산공정과 고압폴리에틸렌생산공정, 아닐론생산공정을 완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낳았다.

결과 주체68(1979)년 11월에는 마침내 연건축면적이 수천만㎡에 달하는 대화학기지가 일떠서 그 조업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였다.

이렇게 일떠선 남흥이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날로부터 오직 자기 힘, 자기의 기술로만 전진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할수 없는 남흥의 투쟁정신, 투쟁본때이다.

조업후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자력갱생을 잘하는 공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평가도 해주시며 남흥의 로동계급을 보다 큰 위훈창조에로 이끌어주시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걸어온 자력자강의 로정속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에 대해 사람들은 다는 모르고있다.

건설이 시작되던 초기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창설하는 대화학공업기지인것만큼 여기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양성에 힘을 넣을데 대한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실 그때는 방대한 대상건설에 모든 력량이 집중되여있던 시기인것으로 하여 기술자양성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화학공업창설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에 의해 후날 세상을 놀래우는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이 땅우에 우후죽순처럼 태여날수 있었다. 그이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의 기술자들은 서방기술사환군들의 코대를 꺾어놓고 부분렬시온전을 비롯한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난관들을 련이어 극복하며 첫 뇨소비료를 생산하였고 수입에 의존하던 중요설비와 부속품들, 여러가지 촉매와 보조약제들을 자체의 기술로 개발하여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였다.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온 남흥의 자력갱생의 전통은 마침내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주체비료생산이라는 경이적인 현실을 이 땅우에 펼쳐놓았다.

일찌기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라고 정식화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비료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로 생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석탄가스화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비료공업의 주체화라는 눈부신 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오늘도 우리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있다.

수입원료에 종지부를 찍고 비료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할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방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였다.

무연탄가스화, 이것은 국내원료로 생산을 안전하게 정상화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였다. 그러나 비료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설계와 설비제작 등 실천단계에서 부닥친 애로와 난관은 적지 않았다.

그러한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비료생산을 더는 미룰수 없는 중대사로 제시하시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에 다그쳐 끝낼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연탄가스화공정을 빨리 꾸려야 비료문제를 풀어 농사를 잘 지을수 있으며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무연탄가스화공정을 꾸리는것은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것만큼 여기에 자금을 아끼지 말고 대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정녕 그날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주체화만이 우리가 살길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근본방향이라는 철석같은 의지를 심어준 귀중한 지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비료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현존공정을 최대한 리용하면서 무연탄가스화공정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대담한 목표가 세워지고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 등 전반공사가 립체적으로 전개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총공사량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방대한 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에 모를 박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켰다.

대화학기지에 드센 정령열풍이 몰아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지반교체를 하지 않고도 기초공사를 원만히 할수 있는 대담한 공법을 창안하고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었다. 이 나날 건설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500여개의 말뚝기초치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으며 기존공법으로는 몇달이 걸려야 할 압축기기초콩크리트치기를 20여일만에 끝내였다.

가스화공정건설에서 제일 큰 대상인 가스발생로건축공사는 보통상식으로 볼 때 기업소의 힘만으로는 아름찬 과제였다.

언제나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견인불발의 투지로 높이가 수십m이고 무게가 20여t이나 되는 가스발생로건물기둥을 짧은 기간에 근 100개나 일떠세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남흥로동계급의 투쟁본때를 과시하였다. 층막공사에서도 누구도 해보지 못한 대담하고 기발한 공법을 착상하여 립체전을 벌림으로써 2 000여㎡의 목재를 비롯한 막대한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발생로 한기의 층막완성기일을 초기의 열흘로부터 몇시간으로, 건축기일을 6개월로부터 40여일로 앞당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3계로공정의 내화물축조공사에도 우리 식의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여 1년이상 걸린다던 공사를 두달동안에 끝내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 5월 남흥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가스화대상공사에서 비약의 열풍을 안아온 힘의 원천이였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실천으로 보답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몇년이 걸려야 한다던 방대한 건축공사를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끝내였고 지상화대식조립방법과 같은 기발한 공법들을 도입하여 가스청정공정의 대형장치물들의 조립기일을 훨씬 앞당겼다. 가스발생장에 육중한 제진기들을 1시간에 1대씩 통채로 설치하고 보름나마 걸려야 할 압축기실천정기중기조립을 5일로 단축하는 등 련이은 기적이 창조되였다.

마침내 남흥의 로동계급은 1만여t에 달하는 설비, 장치물들의 조립과 수십㎞의 배관설치 등의 방대한 공사량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였다.

남흥가스화대상건설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촉매를 자체의 기술로 만드는데 성공하고 수직형룡탄건조로 등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연구도입하여 자립적인 비료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련합기업소의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은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무연탄가스화공정에 새로운 형의 콤퓨터조종체계인 DCS를 우리 식으로 연구도입하였다.

결과 주체99(2010)년 4월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이 완성됨으로써 우리에게 흔한 자원에 의거하여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킬수 있게 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비약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남흥의 기적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건설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오늘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선물로 내려보내주신 유화 《남흥화학공업기지의 아침》은 오늘도 련합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온실남새들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손길에 이끌려 련합기업소에는 년산 6 000만㎡의 기능성3겹온실박막생산기지가 일떠서 창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주체비료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순환비등층보이라가 완공되고 4세대종합촉매를 우리의 기술로 개발하여 PP섬유원료의 국산화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앞으로 탄소하나화학공업의 창설과 함께 경공업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기술적준비가 다그쳐지고 희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련합기업소는 전진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으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비약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종업원들의 후방공급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

현대적인 축산기지에서 돼지, 오리, 게사니, 칠면조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한해에 많은 량의 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로동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있다.

개간된 드넓은 간석지에서는 물론 곳곳에 꾸려진 부업기지들에서는 많은 량의 남새를 비롯한 작물들을 수확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은 수산기지며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청춘원과 체육관, 훌륭히 꾸려진 로동자합숙과 살림집들, 세멘트생산기지를 비롯하여 오늘 련합기업소에 펼쳐진 벅찬 현실은 온 나라에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주체102(2013)년 6월 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년산 6 000만㎡의 기능성3겹온실박막생산기지와 비료출하직장, 축사와 청춘원을 돌아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선 기업소,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병기창이라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남흥의 로동계급은 주체비료생산을 정상화하고 대화학공업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50년의 자랑찬 발전행로를 이어온 남흥은 오늘 또다시 새로운 비약의 도약대에 올라섰다.

주체적인 화학공업창설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고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불철주야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련합기업소의 앞길은 보다 휘황찬란하다.

지나온 년대기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남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보다 광명한 래일이 앞당겨진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으로 절감하며 새로운 기적창조의 력사, 전변의 력사를 줄기차게 수놓아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심 학 철

록색생산방식의 확립을 추동한 의의깊은 계기

연소모형주조기술강습 및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하고

지난 9월말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밑에 연소모형주조기술과 관련한 전국적인 강습 및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이번 강습 및 보여주기사업을 며칠 앞두고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온 주최단위의 한 일군은 지금까지 많은 기술강습과 보여주기사업들을 조직해왔지만 이번처럼 참가열의가 높은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꼭 참가해줄것을 요청해왔다.

이렇게 되여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찾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를 확립하고 록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경제기술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우리와 만난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장 황영남동무는 이번 강습 및 보여주기사업에 기계공업성, 석탄공업성, 채취기계공업국,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을 비롯하여 10여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70여개 단위들에서 온 수백명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참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참가자수가 초기의 계획보다 배이상이나 늘어났다는 그의 말을 들으니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록색형주조기술로 주목되고있는 연소모형주조기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었다.

기술강습은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연소모형주조기술의 원리와 방법,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대하여 조선주물협회의 권위있는 박사들이 출연하는 강의가 먼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연소모형주조공정을 확립하고 여러 단위들에 도입해나가고있는 성과를 가지고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의 연구사가 출연한 기술강습은 참가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강의와 기술강습이 진행되는 동안 영사막에 비쳐지는 중요한 자료들을 열심히 기록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보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체육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록색형주조실습기지로 향하였다.

첨단과학기술교류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한 대학적인 본보기로 번듯하게 일떠세운 기지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주물을 하는데가 정말 맞는가고 감탄을 터뜨렸다. 방금전 강의와 기술강습에서 화면으로 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나어린 처녀들이 CNC신품조각기를 비롯한 첨단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거품수지모형부분품들을 만들고 조립하는 구역을 보며 《여기가 백색구역이구만.》하면서 강의내용을 되새겨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황색구역에서 겉면에 내화도료를 바른 완성된 거품수지모형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기도 하였다.

얼마후 흑색구역에서는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압모래통의 마른 모래속에 진동다짐하여 넣은 거품수지모형에 쇠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진행되였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어온 록색형주조기술, 연소모형주조기술에 대하여 확고한 표상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참가자들이 연해연방 터치는 찬사는 쉽게 끝날것 같지 않았다. 현장에 전시해놓은 각종 거품수지모형들과 정밀주물품들을 보던 어느 한 제강소의 기술일군은 자기들이 애를 먹고있는 알판성형틀을 이 방법으로 주물하면 복잡한 기계가공을 하지 않고도 그대로 쓸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무척 기뻐하였다. 주물작업장이 이렇게 깨끗할줄은 정말 몰랐다고, 그래도 주물에서는 자기들이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적은 투자로 이런 공정을 꾸려놓으면 실리가 훨씬 더 클것이라고 말하는 어느 한 제련소일군도 있었다.

참가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것은 연소모형주조공정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조작기들과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 내화도료, 3차원진동다짐기에 들어가는 진동전동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설비와 자재들을 이곳 교류사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였다는 사실이였다.

큰일을 하였다고,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정말 많은것을 배웠다는 진심어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연소모형주조기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더욱 완성해나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윽고 보여주기사업이 끝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현장을 뜨지 못하였다. 좀더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배워가겠다고 하는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있었다.

록색형주조기술에 대한 강습 및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된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록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적극 추동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게 한것으로 하여 모두에게 준 여운은 대단히 컸다.

본사기자

샘물공장건설 마감단계

자강도에서

자강도에서 샘물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샘물공장을 빠른 시일안에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강계시의 여러곳을 현지답사하면서 샘물원천을 찾은데 이어 공장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건설력량과 수단, 자재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설계와 시공, 건재의 3대요소를 정확시키고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데 힘을 넣었다.

건설에 참가한 도인민위원회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선 하부구조건설, 후 상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원수장건설을 맡은 돌격대원들은 지하물탕크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시설공사를 다그쳤다. 그리고 원수장에서부터 물려과장까지 관늘이기공사도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생산건물과 보조건물공사를 맡은 돌격대원들은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블로크생산을 동시에 내밀어 건설을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데 이어 벽체축조공사와 층막치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돌격대원들은 건설장주변에서 골재원천을 찾아내여 블로크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치렬한 공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생산건물 1층과 2층 벽체축조와 층막공사, 보조건물들에 대한 층막과 지붕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끝낸 기세로 내외부공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건설현장에 나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샘물공장의 특성에 맞게 건설을 질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무균화, 무진화를 보장할수 있게 생산현장들을 꾸리면서 조종실, 분석실, 제품견본실, 과학기술보급실에 대한 마감공사를 다그쳤다.

특히 그것을 리용하게 될 종업원들의 편의보장을 위해 자기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이와 함께 공무동력기지와 용기창고를 갖춘 보조건물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돌격대원들은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구내와 도로포장을 진행한데 이어 울타리주변을 따라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 잔디를 심어 풍치를 돋구었다.

도에서는 각종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김 순 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2일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온 겨레를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하나로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 참관

구중문 국가체육총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이 12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대표단성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반갑게 맞이하였다.

손님들은 대학이 민족간부육성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전자도서관, 수영관을 돌아보고 대학롱구선수들과 친선경기도 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을 참관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대표단 도착

리동제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대표단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이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이 9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이고리 모르굴로브 외무성 부상과 련방평의회 의원들, 국가회의 대의원들 그리고 원동발전성, 비상사태성, 국방성, 문화성의 인사들 등이 초대되였다.

김형준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로친선협조관계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가 설정된 때로부터 지난 70년간 쌍방이 서로의 친선과 선린우호관계를 밀접히 유지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로씨야가 조선과의 쌍무협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조선인민의 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특명전권대사가 12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외무상 리용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한만혁동지, 인민무력성 부상 륙군상장 김형룡동지, 대외경제성 부상 리광근동지,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서호원동지, 외교단사업총국 부총국장 문재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특명전권대사는 로조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올해에 두 나라사이에는 중요한 래왕들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쌍무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변함없는 의지가 과시되였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해나가는것은 로씨야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리용호동지는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을 로씨야의 벗들과 뜻깊게 기념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로친선관계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지나온 70년의 력사를 토대로 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던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 귀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성의 초청에 따라 구중문 국가체육총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고 12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대표단의 주요성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중국인민의 체육사절들을 따뜻이 환송하였다.

체육상 김일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대표단을 바래워주었다.

로씨야외무성 원동지역주재 대표들 귀국

울라지보스또크주재 대표대리 예브게니 뻴로싸스또브를 비롯한 로씨야외무성 원동지역주재 대표들이 12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대사관 공사참사가 전송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쏭치트 총람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이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선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탑신과 원형띠, 기단을 돌아보았다.

단장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로동당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망라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혁명적당이라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평양교원대학, 류원신발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평양교원대학 참관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협동벌

집단주의위력 떨치며 전투성과 확대

함흥벌의 농촌들에서

함흥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집단주의위력을 떨치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날마다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생산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함흥벌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고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누구나 이런 결의로 가슴끓이며 마지막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함주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더욱 분발하고있다.

일군들은 동해안지대의 불리한 날씨에 맞게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정하여 밤낮없이 땀흘려 지은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벼의 여물기과정에 대한 조사를 잘하여 수확시기를 정확히 정하고 일정계획을 바로세워 포전별로 이삭이 어부는족족 벼가을을 해제끼고있다.

가을걷이도중에 비가 내려 벼단운반에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본분을 자각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벼단운반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다.

농장들에 달려나온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벼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그들은 당에서 관심하는 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헌신성을 발휘하고있다. 전야마다에 애국충정의 숨결이 세차게 높뛰고있는 가운데 군에서는 벼가을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함흥시안의 농촌들에서 총돌격전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시에서는 탈곡기들의 동력보장대책을 원만히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마지막영농전투에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벼단운반에서 뜨락또르와 함께 무림소들을 적극 리용하는데도 품을 들이고있다.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해결하여 종전보다 적재능력이 큰 탈구지들을 만들어 벼단운반실적을 높일수 있도록 하고있다.

사회주의경영열풍이 불아치는 속에 농장들에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며 집단주의위력으로 전투성과를 높여가고있다. 농장들에서는 매일 로력조직과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전투분위기가 날마다 고조되도록 하고있다.

정평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완강한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가을걷이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전투과정에 앞선 농장들의 경험이 일반화되고 이 단위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추적전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의 련결차를 개조하여 더 많은 벼단을 실어나르면서 운반속도를 높이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애써 지은 낟알을 운반도중에 한알도 허실하지 않기 위해 련결차들에 망석을 펴는 등 필요한 대책을 세우면서 뜨거운 애국심을 바쳐가고있다.

운반이 앞서는데 맞게 낟알털기속도가 높아지고있다. 벼종합탈곡기들을 개조하여 낟알털기능력을 훨씬 높인 어떤 농장 작업반들이 앞서나가면서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과시하고있다.

올해 근적으로 많은 이동식탈곡기를 생산한 성과에 기초하여 농장들에서는 포전에서의 낟알털기비중을 높이고있다. 결과 벼단운반에 들이던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낟알털기속도를 높이고있다.

군에서는 화상회의를 통해 농장별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정형을 대비적으로 알려주고 부족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단위들을 분발시키는것과 함께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릴 충천한 기세로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돌격전에 의해 함흥벌에서 가을걷이한 포전들이 늘어나고 낟알더미가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운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산군 좌리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이려면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운산군 좌리협동농장에서 벼단운반속도를 지난해보다 높이고있다. 뜨락또르들에 자동부림장치를 도입한 것이 큰 은을 내고있다.

사실 지난 시기에는 몇대의 뜨락또르에만 이 장치를 했었다.

농장일군들은 이 사실에 주의를 돌리였다.

그전에도 이런 상태에서 낟알운반을 지장없이 하였는데 올해라고 별다른 일이 있겠는가고 생각한다면 무심히 스쳐버릴수 있는 사실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문제를 그런 립장에서 대하지 않았다. 뜨락또르마다 자동부림장치를 설치하여 운반속도를 높이면 그만큼 낟알허실을 막고 결국에는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알곡증산으로 화답하는것은 나라쌀독을 책임진 주인들의 응당한 본분이 아니겠는가.

일군들의 이런 절절한 이야기는 기계화작업반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들은 분발하여 뜨락또르들에 자동부림장치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농장에서는 운반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데 더 힘을 넣게 되였다.

일군들은 뜨락또르에 못지않게 탈구지리용률을 높이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어기서 잘한것은 본보기를 내세우고 일반화하는 방법을 받아들인것이였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탈구지들을 새로 만든 제4작업반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초급일군들을 각성시키였다. 초급일군들은 탈구지를 새로 만드는것은 올해 알곡생산목표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깨닫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여들어 실적을 올리였다.

농장에서는 포전도로보수에도 힘을 넣었다. 포전도로의 여기저기에 패인 곳들이 있었던것이다. 이런 곳들을 흙으로 메우면 비가 내리는 경우 다시 패이게 된다. 이것은 땜때기식이라고 본 일군들은 짠돌을 리용하기로 하였다. 짠돌은 어디서 쉽게 얻을수 없기때문에 과제기를 해결하여 리용할 방도를 찾았다. 농장에서는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품을 들여 과제기를 마련하였다. 이 설비를 임의의 장소에서 리용할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작업반들을 차례로 돌면서 포전도로보수를 진행해나갔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해 마지막영농전투에서의 승리를 안아오는데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본사기자

로력문제해결방도를 찾아

개천시 북원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슨 일에서나 가장 큰 예비는 대중의 정신력에 있습니다.》

개천시 북원협동농장에서는 벼가을걷이를 다그치는데서 로력문제가 긴장하게 제기되였다.

일군들은 제한된 로력으로 벼가을걷이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여러모로 방도를 찾으면서 애썼다. 이들에게는 이처럼 바쁜 시기에 로력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나군 하였다.

하지만 당조직에서는 로력의 긴장성을 단순히 인원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립장에서 이들에게 당의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로 농장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구호와 포전방송기재 그리고 이동식속보판들을 리용하여 전투장들이 항상 끓어번지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이것을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의 시작으로 여기고 한걸음 더 들어갔다.

너나없이 드바쁘게 뛰는 전투장은 어려운 모퉁이에 먼지물을 내대고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야전형의 지휘관들을 요구한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한몸을 초불처럼 태울 각오를 안고 포전들에 나가 앞세를 떠였다.

그 앞장에 당일군이 섰다. 그는 비생산로력으로 한개 작업조를 짓고 뒤떨어진 작업반들에 나갔다. 포전을 타고앉아 겹싸게 벼가을걷이를 하면서 그는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여 올해농사를 멋멋이 흥화짓자.

여기에 고무된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기세충천하여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성실한 땀을 바쳐 실적을 올리였다.

작업반들에서는 벼가을걷이에 로력을 집중시키고 분조가 달라붙어 곡식이 익는족족 한개 포전씩 벼가을걷이를 와닥닥 해제끼였다.

이렇게 하니 전투장이 항상 흥성거려 농장원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그들은 논이 작업반마을들과 멀리 떨어져있는 조건에서 여느때보다 일찍 포전에 나가 집단주의위력을 떨치면서 벼가을걷이적기를 보장해나갔다.

벼단을 빨리 운반하기 위해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소달구지들을 더 만들어 리용하였다.

증산돌격전의 앞장에 선 청년들은 작업반별로 돌격대를 짓고 벼가을걷이를 마친 지덕이면 탈곡장에 달려나와 낟알털기전투를 련이어 벌리였다.

년로하여 일손을 놓은 사람들도 스스로 나와 적극 도와주다보니 낟알털기를 제화대로 내밀수 있었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조건에서 그전보다 농사결속을 빨리 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방 영 진

농기계리용률을 높여

연탄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연탄군안의 농장들에서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올해 군에서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보름이상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을 지닌 일군들은 수행방도를 찾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이들은 지난 시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앞장섰던 농장들에 내려가 좋은 경험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여러차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그 과정에 뜨락또르들에 연유절약기를 설치하면 가동률을 더욱 높일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져 낟알운반속도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군일군들이 능력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뜨락또르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게 한 사실도 긍정적이다.

이들은 군안의 모든 뜨락또르들의 가동상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기술상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한데 이어 수리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해당 단위의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구성된 3개의 이동수리조를 조직하여 지구별로 갈라서 현장에 파견하였다. 이때 필요되는 뜨락또르부속품들을 군에서 전적으로 맡아 해결하여 내려보냈다. 이것이 은을 내였다.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은 순간도 멈춤없이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이것을 뼈속깊이 새긴 군일군들은 근 100대의 수동식강냉이탈곡기생산전투를 벌려 낟알털기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작전안을 세우고 수동식강냉이탈곡기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였다.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은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탈곡기제작은 군농기계작업소에서 맡아하도록 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수시로 전투현장에 나와 제작정형을 알아보고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워주면서 생산지대중을 이끌어나갔다.

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농장원들과 함께 지켜섰다는 애국열의를 안고 군의 지대적특성에 부합되고 최대의 능률을 낼수 있는 수동식강냉이탈곡기를 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자력갱생정신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아글타글 노력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수동식강냉이탈곡기들을 제작하였다.

이들이 만든 수동식강냉이탈곡기는 제작원가가 저고 단위시간당 능률이 높으며 간편하여 한명의 로력으로 임의의 장소에서도 낟알털기를 진행할수 있었다. 이것이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작업반마다에 한대씩 차례지게 되여 군적인 낟알털기속도는 무쩍 높아지게 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일군들은 기계화비중을 높여 다음해농사차비를 동시에 해나가기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군적인 범위에서 낟알짚을 절단하는 기계제작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수십대의 절단기가 제작됨으로써 가을걷이를 하면서도 낟알짚에 의한 유기질비료생산을 짧은 기간에 결속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장마다에서 기계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는 군의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해나갈 때 뜻깊은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영 학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가을걷이를 질적으로 하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든다.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림 찍음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그날계획은 그날로

문천시 남창협동농장 제3작업반의 농장원들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남먼저 새벽문을 열고 들끓는 전투장에 나간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로력조직을 전투정황과 실정에 맞게 짜고들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이 그날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이끌어나가고있다.

특히 필요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고 뜨락또르, 벼종합탈곡기 등 모든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분조별, 작업조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서로가 승부를 다투며 경쟁적으로 일손을 다그치는 가운데 앞선 작업방법과 좋은 경험들이 제때에 일반화되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높이 세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일정계획은 어김없이 수행되고있다. 그리하여 작업반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농장은 물론 시적으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재령군 신환포협동농장 제9작업반의 농장원들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작업반에서는 공정별로 력조직과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여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히 벼단운반, 낟알털기를 하는 매 공정에 필요한 로력을 정확히 타산함에 기초하여 작업조를 정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고있다.

분조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1분조원들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여 나라의 쌀독에 가득 채우려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맡겨진 전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3분조를 비롯한 다른 분조들에서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려는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실적은 계속 뛰여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잔디용복합비료에 비낀 탐구의 자욱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에서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의 과학자들이 식물의 생장발육에 좋은 잔디용복합비료 《록비1》을 개발하였다.

이 복합비료는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게 할뿐아니라 식물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원소들과 필수미량원소들, 무기원소들을 보충해주어 그의 성장을 촉진시켜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잔디재배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장 오세철동무와 생산도입연구실의 연구사들이 잔디용복합비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였다.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거리와 마을 그 어디에나 푸른 잔디밭이 황홀하게 펼쳐진 광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었다.

잔디연구부문의 과학자로서 남다른 긍지감을 안고 아침출근길에 올라 거리에 펼쳐진 잔디밭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실장의 귀전에 문득 근심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잔디가 영양이 딸려서 크지 못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글쎄요.》

《잔디를 잘 자라게 하는 비료는 없을가요?》

잔디밭관리를 진행하던 녀인들의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실장에게도 잔디용비료라는 말이 생소하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온 나라에 사철푸른잔디를 널리 퍼치자면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다.

(잔디재배에 적합한 비료를 확실력있는 연구사들로 연구집단도 무어주었다.

하지만 복합비료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잔디가 잘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원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값눅은 원료원천을 찾아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잔디밭에 리용하는 복합비료인것만큼 원료원천이 풍부하면서도 생산원가가 적어야 누구나 즐겨 사용할수 있는 제품으로 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합리적인 원료원천을 찾기 위해 연구사들모두가 문헌조사도 하고 현지에 나가 직접 시료도 채취해오면서 불같은 헌신으로 낮과 밤을 이어갔다.

이들은 잔디용복합비료로서의 성능을 충분히 내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립체적으로 밀고나갔다.

잔디용복합비료는 한면 처서 잔디에 영양성분이 고르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흡수되게 하여야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자면 새로운 접절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조성성분은 물론 제조방법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나설 때마다 이들은 헌데적인 잔디연구기지를 꾸려주시고 과학자, 연구사들이 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당의 조치가 온을 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효능높은 복합비료를 개발할 일념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연구사업을 벌려나가면 이들은 마침내 어느 한 강의 감탕에서 필요한 영양원소들을 찾아내게 되였으며 점점제도 훌륭히 만들어내게 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만 있으면 못해낼것이 없다는 진리를 연구사업과정에 다시금 확신한 연구사들은 새로운 형식의 비료알성형기도 자체로 제작해내게 되였다.

지금 이들은 복합비료생산공정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잔디뿐만아니라 여러 농작물에도 효과적인 잔디용복합비료 《록비1》을 광광 생산하여 전국의 많은 단위들에 보내주고있다.

이런 애국의 마음을 간직한 과학자들이 있기에 내 조국의 문명할 래일은 더욱 밝아오는것 아닌가.

본사기자 박 현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벌어지는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과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자 1부류축구련맹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4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제비:기관차

녀자 제비:리명수

경공업성:압록강

리명수체육단에서

남자 리명수:홰불

4.25체육단에서

남자 4.25:경공업성

갈매기체육단에서

녀자 갈매기:소백수

1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홰불:4.25

2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평양:기관차

월미도:경공업성

녀자 평양:압록강

압록강체육단에서

남자 압록강:홰불

월미도축구단에서

녀자 월미도:리명수

4.25체육단에서

녀자 4.25:소백수

공화국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도 계속된다.

14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수영경기관에서 여러 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물에뛰여들기경기가 있게 된다.

14일부터 기계체조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 륙상 남, 녀경기가 사리원청년경기장에서, 16일부터 배구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배구경기관에서, 18일부터 력기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력기경기관에서, 19일부터 테스팅 남, 녀경기가 대외경제성체육단에서 각각 시작된다.

지상호케이 녀자경기는 통라인민체육공원 지상호케이장에서 19일에 결속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굳건히 이어지는 애국의 대

단천시인민위원회 로동자 문성녀동무의 생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 7월 어느날 저녁 단천시인민위원회 로동자 문성녀동무의 가정에서는 여느때없이 웃음꽃이 피여나고있었다.

조국보위초소에 선 아들의 부대에서 감사편지와 사진을 보내여왔던것이다. 얼마전에는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이고있는 딸의 편지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아들의 부대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으니 어찌 기쁨이 넘쳐나지 않으랴.

편지와 사진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는 문성녀동무와 그의 남편 김영선동무의 얼굴에는 홍대병사의 부모가 된 남다른 긍지와 자랑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그새 몰라보게 달라졌구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성녀동무에게는 자식들을 끔끔하게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던 나날들이 추억깊이 되새겨졌다.

문성녀동무의 아버지는 전쟁로병이였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나라가 없으면 상가집 개만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혁명의 전세대들이 후대들에게 남긴 피의 교훈이였다. 하기에 남편 김영선동무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최전연초소로 달려갔고 문성녀동무 역시 조국이 부르는 대건설장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 나날 문성녀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었다.

가정을 이룬 후 이들부부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어머니당과 조국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고 또 바치고 싶은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다한 문성녀동무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때에도 많은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주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시안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하기에 금봉동에서 사는 김태선로인을 비롯한 시안의 전쟁로병들은 지난 여러해동안 자기들의 생활을 친혈육처럼 돌봐주면서 성의를 다한 그를 우리 딸, 우리 며느리라고 정답이 부르고있다.

문성녀동무는 그 길에 자식들도 따라세웠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가정교육을 더욱 짜고들어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리였다. 이것은 자식들의 세계관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는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하여 아들과 딸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이렇게 조국보위초소로 달려갔던것이다.

그날 밤 그들부부는 벽에 걸려있는 지원증서들과 자식들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을 번갈아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하였다.

너희들은 홍대로, 우리들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것으로 조국을 지키고 받들자고.

언제나 어머니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조국을 받드는 억센 성들이 되여준 이런 훌륭한 가정들의 가풍이 세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기에 내 나라는 그토록 강한것이리라.

특파기자 김 경 철

사회주의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 위대한 당

조선로동당은 세상에서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당이다. 이것이 우리 당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통된 견해이며 평가이다.

하다면 그 무엇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이 이런 평가를 받고있는것인가.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조선로동당이 그 어느 당도 대신할수 없는 특출한 공헌을 하였기때문이다.

하기에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세계 혁명적당들의 기수라고 하면서 조선의 붉은 당기가 사회주의운동의 중심에서 펄펄 휘날리고있기에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고있다.

우리 당의 력사적공적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이며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도자적역할을 해줄것을 바라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의 표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을 리론실천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전진을 추동하였습니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전진하는 기상한 혁명위업이다.

조선로동당은 장장 70여년간 그처럼 준엄하고 복잡한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탈선도 없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승승장구하여왔다.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조선로동당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있던 지난 세기말 사회주의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그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당시 사회주의위업은 세계적인 반사회주의, 반혁명의 역풍속에서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을 운운하며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바로 그 엄혹한 시기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폭풍을 맞받아나가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제국주의자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사상과 리념을 고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리상이고 정의이며 그 승리는 필연이라는것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심으로써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시였다.

세계적범위에서 혁명적당들이 새로운 당건설과 당활동을 어떻게 할지 몰라 모대길 때에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혁명적당들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와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정당들에 승리의 기치, 보검을 안겨주시였다.

세계의 많은 혁명적당들이 새로운 활력을 안고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사회주의운동은 위기에서 구원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세계의 수많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에 공동의 투쟁강령을 마련해줌으로써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지난 세기말 세계의 혁명적, 진보적정당들이 공동의 투쟁강령을 가지고 단결하여 사회주의재건운동을 벌려나가도록 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계기로 세계의 수많은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대표들이 평양에 왔을 때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헤아리시고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쌍무적 및 다무적접촉과 회담을 진행하여 공동의 투쟁강령을 내놓는 문제를 진지하게 론의하도록 하시였다. 그렇게 되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평양선언이 마련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된타격을 주었다.

공산당, 로동당들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당들은 한결같이 평양선언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문건》, 《제2공산당선언》,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의 기치》라고 하면서 선언에 앞을 다투어 서명하였다.

1992년 4월 평양선언이 채택될 당시 여기에 서명한 정당들이 70개였다면 6개월후에는 140개로, 1년후에는 170개로 늘어났다. 오늘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평양선언이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는 정의이고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이 실증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을 선도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 세계혁명의 기수로 존엄떨치게 되였다.

언제인가 브라질 10월8일혁명운동총비서는 《한때 쏘련이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중심이였다면 오늘은 조선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솟아있다.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이 력사의 중하를 걸머지고 인류의 앞장에서 참다운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고있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수령의 위대성에 있다. 수령이 위대할 때 당도 나라도 위대해지고 혁명도 사회주의도 승승장구한다는것은 조선의 력사가 세계앞에, 시대와 인류앞에 증시한 진리이다.》고 말하였다.

그렇다.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 당,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있는 당으로 존엄떨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사회주의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세계 혁명적당들이 들고나아갈 공동의 투쟁강령을 마련해주시였기에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존엄높은 당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에서 세계 진보적인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리 학 남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

조선로동당창건 73돐 경축행사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의 련합경축모임과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5일 스웨덴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행사장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북유럽 진보정당,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 스웨덴에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에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단마르크, 핀란드, 스웨덴에의 정당, 단체인사들은 연설들에서 창건후 70여년간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끈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력사를 찬양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사상과 업적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암살책동속에서도 조선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신 최세의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

스위스, 영국단체들 성명 발표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스위스, 영국단체들이 3일 공동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창건업적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자기의 숭고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조선로동당이 향도하는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는 나날은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백방으로 다지시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 특기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들이시다.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정치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혁명적이며 계급적인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아래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해왔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조선중앙통신】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중국에서 새시대 당의 강군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중국공산당은 《두개 백년》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실현의 실천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군사상을 제시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있다.

습근평주석은 지난해 중국인민해방군창건 90돐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중국인민이 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면 하루빨리 세계일류급의 군대를 건설하여야 하며 강군사업을 부단히 추진하고 새로운 형세하에서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력사는 당이 군대를 지휘하는것이 군대의 본질과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담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군대는 임의의 시각과 정황속에서 반드시 당의 령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강군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들을 제기하였다.

그 요구들을 보면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군대가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 당의 군사지도리념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언제나 싸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임의의 시각에 싸움에 동원될수 있게 준비하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정예군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정치사업에 의거한 군대건설, 과학기술에 의거한 군대발전, 법에 의거한 군대관리를 견지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며 정치사업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것 등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정치사업을 강군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여러 계기들을 리용하여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얼마전 습근평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당건설회의에서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와 당건설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것은 당건설과 강국, 강군추진의 필수적요구라는데 대해 밝혔다. 그는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와 당건설사업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시대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고 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는데 확고한 정치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와 당건설은 군대건설과 발전의 기본이므로 이 사업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군대의 각급 당조직들을 강력하게 꾸려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중앙군사위원회는 《새시대 군대당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 배포하였으며 전군에 중앙군사위원회 당건설회의에서 한 습근평주석의 중요연설정신을 심어주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인민일보》는 《습근평은 인민의 군대를 인솔하여 고전에서 다시 출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습근평주석이 강군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습근평주석이 2014년 10월 30일 복건성 상항현에서 진행된 전군정치사업회의에서 정치사업은 강군건설의 생명선이며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군무대들이 홍군의 전통을 따라배워 강의한 정신을 소유한 강군으로 준비해야 한다는데 대해 언급한 내용 등을 실었다.

지난 5월 습근평주석은 군사과학원을 시찰하면서 군사직실천을 지도하고 군사적변혁을 인도하는데서 군사과학이 노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지적하고 당의 강군사상을 적극 관철하며 리론과 기술의 융합, 연구와 실천의 결합, 군민융합을 견지하고 현대군사과학의 발전을 다그침으로써 군사과학원을 높은 수준의 군사과학연구기구로 건설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견지하며 당의 령도가 군사과학연구사업의 전과정에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김 수 진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지난 6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집회가 진행되였다.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집회에서는 《대북적대정책철회》, 《판문점선언리행방해, 내정간섭 중단》 등의 구호들이 울려나왔다고 한다.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적극 리행하고 민족자주를 실천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과 간섭, 방해책동을 철저히 배격할것을 결의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의 한 인사는 미국에 맞서 승리하는 길은 민족공조와 민족대단결에 있다고 강조하고 더 큰 단결을 위해 로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참가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대회에 민주로총과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했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 민족문제해결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대회에서는 미국이 우리 민족문제에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으며 북남합의를 리행하는 문제에 간섭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이날 대학생들도 공연무대를 펼치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회에서는 미국에 보내는 서한이 광독되였다.

서한에는 북남판계문제,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중단과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 철폐와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다음번 집회를 11월 3일에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김 철 남

갈수록 어두워지는 반역당의 미래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시대와 민중의 버림을 받고 종당에는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것이 당밖의 냉정한 평가이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6%로서 주요 원내 정당중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호감이 간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불과 15%에 그쳤는데 비호감도 대 호감도의 비률이 5대 1이나 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커의 없다. 《자유한국당》은 소멸되여 력사속으로 사라질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평가는 보수세력내부에서도 나오고있다.

《련합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민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분렬될것이고 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친박, 비박이 끊임없이 싸움질만 하고 랭전보수세력이 중심을 이루고있는 〈자유한국당〉은 극히 불안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기때문에 의석수는 많아도 정치적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자유한국당》의 반평화, 반통일책동은 제손으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짓

남조선신문이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8일 《자기 무덤을 깊게 파고있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등 반평화, 반통일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이 고수해온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하였는가 하면 《군사적합의를 절대로 수용할수 없으며 특단의 조치 강구》, 《한국정치 1번지가 평양이 될 지경》 등의 망발을 늘어놓으며 발악하고있다고 글은 단죄하였다.

글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반평화, 반통일책동은 제손으로 자기 무덤을 깊이 파는 어리석은짓이라고 비난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이후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시대가 바뀌였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골수에 박힌 《반공반북》을 고집하며 스스로 고립과 소외를 불러오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래도 한때 여당이였던 《자유한국당》의 지지률이 8%세선으로 떨어진 현실은 망언, 추태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잘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가는데 최대의 장애물이다.

《자유한국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탄낸 주범이자 민족을 분렬시키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온 장본인이다.

6.15공동선언의 실천적조치들이 10.4선언에 담겼듯이 판문점선언의 실천적조치들을 담은것이 평양공동선언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거부하는것은 곧 평화와 번영에 대한 거부이다. 이런 《자유한국당》에 차례질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짓밟음마다 가로막으며 사대매국, 민족분렬만을 획책하는 《자유한국당》은 당장 해체되여야 한다.

글은 계속하여 동족대결만을 획책하는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한 이전과 같은 보수 《정권》들이 다시 출현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 통일의 암덩어리를 온 민중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글은 《자유한국당》의 반역과 발악은 반드시 파멸적인 대가를 치를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습근평주석

자연재해방지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10일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연재해방지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자연재해를 방지하는것은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는 효률적이고 과학적인 자연재해방지체계를 수립하고 전사회적인 자연재해방지능력을 높임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힘있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팔레스티나외무상 미국의 처사를 비난

팔레스티나외무상 리야드 알말리키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조약들에서 탈퇴하기로 한 미국을 비난하였다.

지난 3일 미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비롯한 2개의 국제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은 미국이 국제법과 그에 기초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국제조약들로부터 탈퇴하는것은 하나의 도피이며 그렇게 한다고 하여 법적책임을 면하지 못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세계질서와 국제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무모한 태도에 맞서 싸울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전염병피해

지카비루스 전파

인디아의 라저스탄주에서 최근 22명의 지카비루스감염증환자가 발생하였다. 이 나라에서 지카비루스가 전파되기는 지난해 초 이후 3번째라고 한다. 9일 인디아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콜레라 전파

나이제리아 동북부의 보르노주와 요베주에서 최근 콜레라가 전파되고있다. 지난 9월 24일 이 나라 신문 《더 가디언》이 전한데 의하면 20일현재 콜레라에 의한 환자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3 126명, 97명으로 늘어났다. 보르노주의 8개 지역에서만도 2 137명의 감염자가 등록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만 6 35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발병원인은 불비한 위생시설과 주민들이 큰물에 의해 오염된 물을 리용한데 있다고 한다.

서부닐비루스 전파

튜니지에서 최근 서부닐비루스가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1일 정부는 쑤싸주에서 한 늙은이가 이 비루스에 감염되여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부닐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수가 전국적으로 약 80명에 달하고있다 한다.

무더기비피해

중앙아메리카나라들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고있다. 며칠동안 지속된 무더기비로 니까라과, 온두라스, 엘 쌀바도르, 파나마라, 꼬스따 리까 등지에서 12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의 리재민이 발생하였다.

지진피해

아이띠에서 6일에 발생한 리히터척도 5.9의 지진으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8일현재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각각 15명, 300명으로 늘어나고 40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력사의 고발은 계속된다

일제가 중일전쟁도발후 조선에서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총알받이, 로동노예로 내몬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840만여명이다.

이런 전대미문의 특대형랍치범죄를 고발하는 죽음의 고역장들이 일본의 곳곳에 널려있었다. 렬도전체가 조선사람들의 피로 얼룩진 고역장이였다.

일제의 강제련행은 회유와 기만, 제포와 랍치 등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수법으로 감행되였다.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공장에도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이 그렇게 끌려와 죽음의 노예로동에 내몰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홍찬정은 40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처음에 송림에 있던 겐이포제철소(당시)에 끌려가 약 1주일동안 무보수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하면서 《그후 왜놈들은 우리를 부산항으로 끌고가 관부련락선에 태웠다. 련락선에는 이미 1000명정도의 조선사람들이 타고있었다. 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차에 태워 고베제강소로 끌고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김성호는 100여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강원도의 록군《련병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3개월간 군사훈련을 강요당한데 대해 성토하면서 《일제는 1944년 3월초에 그곳 〈련병소〉에 와있던 1000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관부련락선에 태워 시모노세끼항까지 끌어갔다. 그들가운데서 500명은 규슈방면에, 나머지 500명은 간사이방면으로 끌고갔으며 나를 포함하여 후창군(당시)에서 온 사람들은 고베제강소에 넘기였다.》고 하였다.

일제는 랍치, 강제련행한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넣고 노예적규률을 적용하였으며 가혹한 로동강도와 로동시간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홍찬정은 《고베제강소에 도착한 우리들을 관자로 만든 함숙에 들이밀었다.

…

나는 제강소에서 용해공으로 일하였는데 뜨거운 로앞에서 하루에 14~16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놈들은 조금이라도 일손이 더디거나 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덮어놓고 우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년 남짓한 기간 이러한 노예생활이 매일 반복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 김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의 패망직전에 자기와 함께 일하던 25명의 동료들이 일본해군에 《징병》으로 끌려가 오끼나와전선에서 전원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

일제의 반인륜범죄는 침략전쟁의 확대와 함께 단말마적으로 감행되였다.

광란적인 전쟁은 일본의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고 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을 고갈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랍치, 강제련행에서 그 출로를 찾았다.

일본잡지 《전쟁책임연구》 제51호에 의하면 일제는 1944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206만 8 284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어갈 흉계를 꾸미였다.

잡지에는 《조선에서 징용동원대상으로 된 17살부터 40살사이의 남자인구는 390만 5 230명이므로 실질적으로 2명중 1명이라는 계산으로 된다. 1944년에만 하여도 17살부터 40살사이의 로동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사람들을 동원하려 하였던것이다.》고 씌여져있다.

일제가 조선강점기간에 실시한 강제련행방법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가 랍치였다는데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조사에서 이미 밝혀졌을뿐아니라 최근년간에 입수된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공식문건과 자료들에 의해서도 뚜렷이 립증되고있다.

일본도서 《전시기식민지통치자료》 제7권에는 일본내무성이 1944년에 조선에서 진행한 주민동향 및 음, 면행정상황과 관련한 보고서가 편집되여있는데 여기에는 《징용과는 별도로 다른 모든 방법에 의한 출동도 랍치와 같은 상태이다. 그것은 만약 사전에 이것을 알리면 모두 도망치기때문이다. 그래서 야간습격, 유괴 등 각종 방책을 취하여 략탈, 랍치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있는것이다.》고 씌여져있다.

《후가이도와 조선인로동자-조선인강제련행실태보고서》에는 일제가 1944년 5월에 조선에서 후가이도에 100명을 강제련행해올데 대한 지시를 내린것과 관련하여 《…군청직원, 경찰서 및 면직원을 총동원하여 잠자는 곳을 습격하거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리유에 관계없이 련행하는 등 상당히 무리한 방법을 취하여 22일의 출발날자에 겨우 맞추어 84명에 대하여 랑장을 교부하고 수송시키는 사건이 있었음.》이라고 서술되여있다.

이외에도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랍치범죄를 증명하는 자료와 문건들은 많다.

그런데 일본집권세력은 지금도 반인륜범죄의 력사를 은폐, 외곡, 정당화하면서 저들의 파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무를 덜어버리기 위해 갖은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력사외곡에 광분하면서 전대미문의 과거범죄를 숨기려 할수록 그를 고발하는 력사의 증언은 끊임없이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ㄱ-1811632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